

광주 광일고에 '학교복합시설' 조성된다

시교육청·광산구, 교육부 공모 참여
협약 체결...60억 투입 2028년 완공
카페·피트니스실·소공연장 등 추진

광주 광산구 광일고등학교에 학교복합시설이 조성된다. 8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6일 광산구청 청정실에서 이정선 교육감, 박병규 광산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일고등학교 학교복합시설 조성'을 위한 기본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교육부가 추진하는 '2026년 1차 학교복합시설 사업'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교복합시설 사업은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해 교육·문화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육·문화·복지 통합 시설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시교육청과 광산구는 60억원을 투입해 2028년 하반기까지 광일고에 학교복합시설을 조성하는 안을 마련했다. 공유 카페·메이커스페이스·e-스포츠타·VR 체험실·피트니스실·평생교육실·소공연장 등

다양한 교육 문화공간을 갖추고 광일고·임곡중 학생은 물론 일대 시민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오는 4월 사전평가와 심사위원회 평가를 거쳐 최종 대상을 선정하고, 최대 80%의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광일고 학교복합시설이 완공되면 현대화된 교육 공간과 프로그램 제공은 물론 주민 문화·건강 증진 등에도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 1월 일곡중학교에 첫 학교복합시설 '희망이음터'를 완공했다. 일곡

중 학교복합시설은 풋살구장, 맨발산책로, 드론연습장 등을 갖췄다. 또 지난해 대촌중앙초가 학교복합시설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서 60억9천만원을 투입해 오는 2028년 상반기까지 '옴므 호 배움터'를 조성할 방침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학교시설 공유를 통해 지역사회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학교와 지역의 협업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다양한 형태의 학교복합시설이 확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선욱기자

시교육청 "관계회복 숙려제 도입"
초등학교 대상 갈등 중재 등
스마트기기 사용 관리 강화도

광주시교육청은 8일 "초등학생 간 갈등을 대화와 소통으로 해결하는 '관계회복 숙려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관계회복 숙려제도는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이 해결과정에서 오히려 갈등이 심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관계 회복을 통해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초등학생 간 경미한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생과 학부모 등을 기반으로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에 앞서 대화와 소통을 하는 방식이다. 학생들은 숙려기간에 상담, 갈등 중재, 관계회복 활동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시교육청은 관계회복 숙려제도가 안착하면 처벌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학생 간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고 공동체 회복과 재발 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달 27일 광주교육연수원 대강당에서 학교 교감, 생활교육 담당자, 학교폭력 전담기구 담당자 등 700여명을 대상으로 '2026년 생활교육 설명회 및 학교폭력 전담기구 연수'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안내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법과 원칙에 기반한 생활지도가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모든 학생이 안전한 환경에서 치유와 성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학교가 분연의 가치인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부터 학생들의 스마트기기 사용 관리도 강화된다. 이에 따라 각 학교는 학칙을 토대로 수업시간 중 스마트폰 등 개인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고, 교육상 필요한 경우 활용할 수 있다. /박선욱기자



'제107주년 광주3·10독립만세운동' 재현 제107주년 광주3·10독립만세운동 재현 행사가 지난 6일 광주 수피아여고에서 열려 참가자들이 만세 걸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김애리 기자

지난 겨울 호남권 한랭질환 사망자 5명 '최다'

질병관리청 호남권질병대응센터
전남 80대녀 3명...사인 저체온증

지난 겨울 호남권 한랭질환 추정 사망자가 5명으로 역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질병관리청 호남권질병대응센터에 따르면 최근 공개된 '2025년 12월1일~2025년 2월28일 호남권 한랭질환자 발생 현황'에서 이 기간 신고된 호남권 한랭질환자는 총 49명이며 이중 5명이 숨졌다. 한랭질환자 현황은 전국의 응급실 현황 모니터링을 통해 집계하는데, 전체 환자는 2024년-2

025년 51명 대비 2명 줄었지만 사망자는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은 수치이다. 사망자 수는 2021년-2022년 3명, 2023년-2024년 2명 순이다. 사망자의 지역은 전남(장성·담양·광양) 3명, 전북 고창 1명, 제주 1명으로 모두 80대 여성이다. 사망자는 주거지 주변·길가·논밭 등 실외에서 발견됐으며 제주 지역을 제외하고 4명은 치매·심혈관질환 등 기저질환을 동반한 저체온증으로 인해 숨진 것으로 추정됐다. 또 2025년-2026년 한랭질환자 성별은 남성 32명, 여성 17명이며 연령별로는 80세 이상이 18명, 70대·60대 각각 10명, 50대 이하 11명이다.

지역별로는 전남 24명, 전북 13명, 제주 8명, 광주 4명 등이다. 질환별로는 저체온증이 45명으로 가장 많았고 표재성 동상 2명, 다발성 동상 및 동창 1명 등이 뒤를 이었다. 직업별로는 무직 25명, 미상 10명, 농림어업수련종사자 7명, 학생 4명으로 파악됐다. 윤정환 호남권질병대응센터장은 "고령층은 겨울철 한랭질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지역사회와 협력체계를 강화해 한랭질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수희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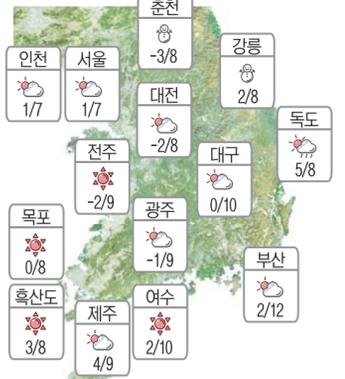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52 해질 18:35 🌧달뜸 --:-- 달짐 09:29

●광주·전남 날씨

광주	구름조금	-1/9	장성	구름조금	-2/8
목포	맑음	0/8	보성	맑음	-2/8
여수	맑음	2/10	함평	맑음	-3/8
나주	구름조금	-3/9	순천	맑음	0/10
완도	맑음	0/10	영광	구름조금	-2/7
구례	구름조금	-2/10	진도	맑음	1/8
강진	맑음	-2/9	흑산도	맑음	3/8
해남	맑음	-2/9	고흥	맑음	-1/11
광양	맑음	1/11	담양	구름조금	-3/9

●전국 날씨



●바다 날씨

위치	오전/파고(m)	오후/파고(m)
서해 앞바다	0.5-1.0	0.5-1.5
남부 먼바다(북)	0.5-2.0	1.5-2.5
남부 먼바다(남)	0.5-2.0	1.5-2.5
남해 앞바다	0.5-1.0	0.5-1.5
서부 먼바다(동)	0.5-1.5	1.0-2.0
서부 먼바다(서)	1.0-2.0	1.0-2.0

●물때

지역	만조	간조	만조	간조	만조	간조	
목포	05:40	10:43	여수	00:05	06:05	00:49	07:10
	17:28	22:47		12:01	18:01	12:40	18:59

●생활정보지수

니들이 50 세차 50
감기 조심해요 급하지 않으면 무료세요

빨래 40 운동 40
실내건조 좋아요 실내운동 즐겨요

●주간 날씨

10일(화)	11일(수)	12일(목)
☀(-1/12) 맑음	☀(0/12) 구름조금	☀(1/14) 맑음
13일(금)	14일(토)	15일(일)
☀(2/15) 맑음	☀(3/15) 구름조금	☀(4/14) 구름조금

▶날씨안내 : 국번없이 131

광주매일신문 전통시장활성화 연중 캠페인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일어납니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깃든 '전통시장'이 장기화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편리한 유통시설이 들어서면서 '전통시장'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은 시·도민들의 지혜를 모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중 캠페인을 펼치겠습니다.

여수 앞바다 싱싱한 해산물이 풍부한

여수 수산시장

◎ 장이 서는 날 ◎ 매일

- 이용시간 : 오전 5시 ~ 오후 10시
- 휴무일 : 둘째, 넷째 화요일

여수 수산시장 내부

여수 수산시장 전경

주최 : 광주매일신문 · 광주매일 TV

후원 : 여수시 YEOSU SI

광고문의 : 062)650-2099